끝나지 않은 역사 문화로 기억한다

광복절 맞아 예술계 활동 활발

고흥 출신 김금숙 작가, 위안부 삶 다룬 만화 '풀' 발간
증언 담은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9월 개봉
광주국악방송, 시인 윤동주 조명·항일 민요 등 소개

15일 제 72돌 광복절을 맞아 문화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된다.

고흥 출신 김금숙 작가는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에 맞춰 장편 만화 '풀-살아 있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보리출판사)을 발간했다.

'풀'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이옥선 할머니의 삶을 흑백으로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책은 유난히도 학교에 가고 싶어했던 여자 아이가 우동가게와 술집으로 팔려간 어린 시절부터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지내야 했던 시간, 전쟁이 끝나고 5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등 할머니의 일생을 담고 있다.

김 작가는 작품을 그리기에 앞서 수차례 이옥선 할머니와 만나 취재를 진행했으며,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풀'은 국내 출간에 앞서 프랑스 델쿠르(Delcourt) 출판사에 먼저 판권을 수출해 프랑스어판 출간도 앞두고 있다.

김 작가는 이미 지난 2014년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개최한 '지지 않는 꽃' 전시회를 통해 단편만화 '비밀'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후 위안부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작품을 기획했다.

세종대 회화과를 거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프랑스에서 조각가이자 만화가로 15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프랑스에서 출간된 '아버지의 노래'를 비롯해 영화로도 제작된 4·3관련 작품 '지슬', '꼬갱이' 등이 있으며 그림책 '애기 해녀 옥랑이, 미역 따러 독도 가요',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 등도 출간했다.

광주국악방송도 15일 하루 동안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성진기 교수가 진행하는 음악전문 프로그램 '아침이 오는 소리'(새벽 5시)에서는 항일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남도 마실'(오전 9시)은 2부로 나눠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는 김병학시인이 출연,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17만20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강제 이주길과 이 길을 따라 펼쳐졌던 항일운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2부 '라디오 드라마 극장'에서는 채만식의 '맹순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순사의 삶을 통해 암울했던 시대와 해방 직후 혼란했던 사회의 모습을 담아낸다.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음악이 흐르는 마루'(낮12시)에서는 조정래의 아리랑, 김산의 아리랑, 조마리아의 편지를 낭송과 함께 소개하며 독립을 노래한 아리랑을 담아 그 의미를 전하고 항일 민요도 들려준다.

'주홍의 무돌길 산책'(오후 6시)에서는 일 년 내내 태극기가 나부끼는 항일의 섬 '소안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항일 운동을 소안도 심만섭 전 면장이 출연해 생생하게 전해 준다.

방송은 광주 FM 99.3MHz를 비롯한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 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더쿵 플레이어'를 내려받아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10.

영화 '귀향'의 속편 격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9월 14일 관객들을 만난다.

조정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귀향'은 지난해 358만 관객을 동원하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10개국 61개 도시를 순회하며 1300여 회의 상영회를 열었고, 국내에서는 100회가 넘는 강연회와 무료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만화 '풀-살아 있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

만화 '풀'의 한 장면

역시 조정래 감독이 제작한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영상으로 보는 증언집으로 영화 '귀향'에서 못다 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더해 만든 영화다.

개봉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열흘간 광주 등에서 시사회를 개최한다. 시사회에는 7만5270명의 '귀향' 후원자를 포함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사회 신청은 제이오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joent.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호남대 '거창한 여름 연극제' 대학부 3관왕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학과장 최영화)가 2017 거창한(韓) 여름연극제의 대학극 경연부문 '청춘마칭 대학극제'에서 창작극 '용궁에 용왕이 없다'로 대상(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또 4학년 이동인씨가 연출상을, 3학년 문성하씨가 연기상을 받았다.

최영화 교수가 극본을 쓴 '용궁에 용왕이 없다'는 바다 밑 세상의의 절대권력 용왕이 쓰러진 후 토끼의 간을 구하러 떠나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작품. 잡혀온 토끼의 간이 알콜 중독으로 상태가 좋지 않자 토끼의 간 회복을 위해 특별 보양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토끼가 바다세상에서 접하는 해괴한 일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는 지난해 '순애의 순정이 없다'로 출전, 작품상 금상과 최우수연기상(이승학), 연기상(조혜수)을 수상한 바 있다.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는 연극, 뮤지컬, 영화 영상 제작과 함께 컬러피플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고 성창순 명창 유품 1295점 국악원 기증

국립국악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성창순〈사진〉 명창 유품 1295점을 기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출신 성 명창이 생전 사용했던 의상과 소품, 악기를 비롯해 유성기음반, 앨범, 육필노트, 공연 실황 사진 등이 기증 물품에 포함됐다.

모든 유품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및 국악아카이브에서 보존 처리·디지털 변환을 거친 뒤 전시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였던 성 명창은 국악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오르며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소리가 길고 여성적인 애절함이 특징인 서편제류 예인으로 시작했으나 시원한 음색과 박력있는 창법으로 그만의 '보성소리'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유하영 '수궁가' 18일 남도국악원서 발표회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소리꾼 유하영의 '수궁가' 발표회를 18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개최한다.

유씨는 이번 공연에서 '수궁가' 중 '초두'부터 '토끼 자라 상봉' 대목까지 들려줄 예정이다. 유씨는 박녹주국악경연대회와 남도민요전국경창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실력파 소리꾼이다. 특히 사설 하나하나를 정확히 표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타고난 목 성음이 구성져 소리의 이면을 잘 그려내는 장점이 있다.

무료 관람으로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앞에서 국악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한편 국립남도국악원은 진악당 후무대 증축 공사에 따라 9월부터 금요국악공감 공연이 국악원 내 연수관 3층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연수관 3층은 150석 규모로 전화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예약 문의 061-540-4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구이 와 규 전 문 점
참숯구이 돼지갈비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